

남산의 생태계교란 생물[식물편]



남산공원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도 살지만 자연 생태계에 위해를 가하는 ‘생태계교란 생물’도 살고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생태계교란 생물 조사를 시작했고, 1998년부터 공식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총 35종이 지정되었습니다.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

[남산 생태계교란 생물] 1985년 이후 15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이 확인됐고 2021년 현재는 11종이 남산에 서식 중입니다. 식물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도깨비가지, 환삼덩굴 등 6종입니다.



도깨비가지

[가을철 남산 생태계교란 식물] 생태계교란 식물은 국화과가 많아 대부분 가을에 꽃이 피습니다.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등은 9월경이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자연생태계에서는 생육하기 쉽지 않지만, 불균형적인 생태계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급속히 퍼집니다. 남산이 생태계교란 생물이 없는 건강한 숲으로 유지되려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확인 /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전 확인 중]

과명	종명(지정연도)	1940년대	1985	1986	1998	2004	2014	2018	2019	2020~현재
국화과	돼지풀(1999)		△	△	△	●	●	●	●	●
	단풍잎돼지풀(1999)		△				●	●	●	●
	미국쑥부쟁이(2009)				△			●	●	●
	서양등골나물(2002)			△	△	●	●	●	●	●
	가시박(2009)						●			
	서양금혼초(2009)				△					
	가시상추(2013)				△				●	
가지과	도깨비가지(2002)								●	●
마디풀과	애기수영(2009)	△		△	△	△				
삼과	환삼덩굴(2019)	△	△	△	△	△	△	△	●	●